



## 아시아 기타 게임 시장 동향

### 인도 퍼블리셔 Hungama, 해외 인기 모바일게임 다수 수입 예정

#### ● Hungama Mobile, 30여 종의 인기 모바일게임 출시



- ◆ 인도의 모바일 콘텐츠 업체 Hungama Mobile이 해외 인기 모바일게임을 자국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Connect2Media와 지난 11월 24일 제휴를 체결했음
  - Hungama Mobile은 자사 회계연도 9~10월 동안 Connect2Media에서 제작한 약 34개의 타이틀을 자사의 유통망(인터넷, 모바일, DTH 등으로 구성)을 통해 출시할 계획
  - 타이틀 목록에는 ‘Guitar Hero: World Tour’, ‘BMW Racing’ 등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게임들이 포함돼 있음
  - 새로 출시되는 모바일게임들은 인터넷, Teta Sky Active Mall, GPRS 접속 등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고 대부분의 휴대단말을 지원

#### ● 배경 및 회사 소개



- ◆ Hungama의 Albert Almeida COO는 ‘인도의 모바일게임 시장은 3,000만 명의 실질유저를 기반으로 120억 루피(2억 5,600만 달러) 규모에 달해 급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제휴로 인도 모바일게임 이용자들에게도 수준 높은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힘
- ◆ [Hungama Mbobile] 남아시아 최대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 Hungama Digital Media의 모바일 부문 자회사로 인도 이동통신 시장에 모바일 콘텐츠 및 기타 부가 서비스를 제공 중
- ◆ [Connect2Media] 모바일에서 양방향 TV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의 게임을 개발하는 동시에 B2B와 B2C 시장 양쪽에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 및 퍼블리싱하고 있는 업체

[www.hungama.com](http://www.hungama.com) [www.connect2media.com](http://www.connect2media.com)

## 호주 정부, 약물 관련 내용 문제 삼아 MMO 게임 'CrimeCraft' 발매 불허



### ● 'CrimeCraft', 약물 관련 내용으로 심의불가 판정

◆ 호주등급위원회가 MMO게임 'CrimeCraft'(Vogster 개발)에 대해 캐릭터 강화용 아이템의 명칭이 마약류와 유사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심의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게임웹진 Gamespot가 지난 11월 30일 보도

- 등급위는 'CrimeCraft'에서 'boosts'로 통칭되는 캐릭터 강화용 일회성 아이템들의 명칭 상당 수가 실제로 금지된 향정신성 약물(K-Dust, Birth, Chimera, Majoun, Betadyne, ResistX, Zymek Stim-Ex, Raze and Frenzy 등)과 같거나 유사하여 자칫 '현실 속의 약물도 사용자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

### ● 배경

◆ 호주에서는 아직도 게임물에 대한 성인 등급 자체가 없는 실정이어서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게임은 판매가 금지됨

- 지난 10월 폭력 수위 문제로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던 Valve의 'Left 4 Dead 2'는 상당한 수정 끝에 11월 초에야 발매됐고, 'Fallout 3' 역시 게임 내 약물 관련 내용으로 인해 수정 작업을 거쳐야 했음
- 이처럼 엄격한 규제체제에 대해 호주 내외의 게임업체들은 '시대착오적인 넌센스'라며 개선을 촉구해왔으나, Michael Atkinson 호주 법무장관은 성인 등급 게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아 출시된 'Modern Warfare 2'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음

 [www.crimecraft.com](http://www.crimecraft.com)

### 호주 개발사 Crome Studio, 경영난 타개 위한 인원 감축 단행

#### Crome Studio, 인력 감축 확정



- ◆ 호주 최대 게임개발사 Crome Studio가 매출 부진에 따른 경영난 타개를 위해 인원 감축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Gamesindustry.biz가 지난 11월 18일 보도
  - 지난 1999년 설립된 Crome Studio는 다양한 퍼블리싱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Star Wars: The Force Unleashed’, ‘Viva Pinate: Party Animals’, ‘Tasmanian Tiger’ 등을 출시했고, 호주의 Brisbane, Adelaide, Melbourne 세 지역을 통틀어 총 4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음

#### 배경

- ◆ Crome Studio의 Robert Walsh CEO는 게임웹진 Gamespot과의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난국을 타개하고 향후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같이 부득이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새로 추진할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고한 직원들 일부를 다시 고용할 방침’이라고 설명
  - Crome Studio의 이번 감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가 게임업계에 여전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시사
  - 지난 10월, 호주의 또 다른 게임개발사인 Transmission Games 역시 비슷한 이유로 20여 명에 달하는 인력감축을 시행한 바 있음

 [www.chromestudios.com](http://www.chromestudios.com)

**STAT** 호주&뉴질랜드 게임 SW 판매순위(11월 셋째 주)

Table		호주&뉴질랜드 게임 SW 판매 순위	
순위	호주 (11.16~11.22)	뉴질랜드 (11.16~11.22)	
1	New Super Mario Bros. (Wii)	Modern Warfare 2 (X360)	
2	Assassin's Creed II (X360)	Modern Warfare 2 (PS3)	
3	Assassin's Creed II (PS3)	Assassin's Creed II (X360)	
4	Modern Warfare 2 (PS3)	New Super Mario Bros. (Wii)	
5	Cricket (Wii)	Assassin's Creed II (PS3)	
6	Modern Warfare 2 (X360)	Wii Play W/Remote (Wii)	
7	Wii Fit Plus Bundle (Wii)	Modern Warfare 2 (PC)	
8	Modern Warfare 2 (PC)	Wii Fit Plus Bundle (Wii)	
9	Wii Play W/Remote (Wii)	Wii Sports Resort W/Motion (Wii)	
10	Wii Sports Resort W/Motion (Wii)	Forza Motorsport 3 (X360)	

[출처] Media Control Gfk International